

1/20(수) 사사기 묵상 42

사사기 14:10-20

삼손(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그의 뜻대로 딘나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의 전통에 따라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삼손과 블레셋과의 갈등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사사기의 배경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등장과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를 통해 나실인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사 삼손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사와는 달리 나실인의 거룩한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둘째로, 블레셋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사 삼손이 등장하는 사 13: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안 가운데 또다시 죄악으로 인해 블레셋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사 시대와는 달리 그들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사 삼손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것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셋째로, 블레셋은 삼손이 사사로 다스리던 20년간 완전히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사를 보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사 16:30-31,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 삼손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무엘 시대와 사울 그리고 다윗 시대 때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둘 간의 전쟁은 지속되었습니다. 사울 시대 때 다윗과 싸웠던 거인 장수인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과 블레셋의 첫번째 싸움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통혼을 강행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니라 블레셋의 전통을 따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 삼손은 결혼 잔치에 참여한 블레셋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 그들에게 내기를 걸게 됩니다. 내기에서 이기고 싶었던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결국 자기 동족의 협박에 못 이기고 삼손에게 졸라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분노하게 되었고 혼인 잔치는 갑자기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곳 사람 삼십 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 후 삼손은 이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렸고 혼인 잔치가 끝나자마자 삼손의 결혼은 파혼되고 말았습니다(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부 주석가들의 해석처럼 삼손을 영웅처럼 여기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일부러 계획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도 삼손처럼 어떤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부정한 과정과 절차를 용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 과정도 매우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잠 6:20-24, “내 아들이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메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사사 기드온과 같이 우리의 혼인 관계를 희생시키시거나 또는 사사 입다와 같이 그의 사랑하는 딸을 인신 제사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 묵상한 것처럼 사사 삼손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미국을 위한 기도: 오늘은 미국 46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평화롭게 취임식이 진행되게 하시고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있는 연합 남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오만에서 사역하시는 김데이비드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